

정체성에 따른 번역가 문체 연구: 장소 직시를 중심으로 한 안정효의 번역 및 창작 텍스트 코퍼스 분석 사례*

이세희 · 최희경
(한국외대)

1. 서론

“문체는 곧 그 사람 자신이다(Style is the man himself).”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뷔퐁(Buffon)의 말이다(Buffon 1753/1921, Hogan 2014: 519에서 재인용). 이 말은 개인의 사상, 독특한 성격, 버릇 등이 자신의 글쓰기에도 드러나며, 글을 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연 ‘번역’한 글에도 적용되는 말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 사람이 번역가로서 또는 작가로서 글을 쓸 때, 즉 그의 텍스트가 번역일 때와 번역이 아닌 창작 텍스트일 때 각각에서 문체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이므로 그 사람의 고유한 문체가 두 유형의 텍스트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날지, 혹은 한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번역가와 소설가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니므로 번역된 텍스트와 창작 소설에서 서로 다른 문체적 특징이 나타날지가 본 연구의 관심사다.

이런 접근은 번역가의 문체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 즉 복수 번역가의 번역 코퍼스를 구축해 비교 분석한 연구(이창수 2015; Baker 2000; Olohan 2003), 번역가 문체를 원천 텍스트 및 참조 코퍼스와 비교 분석한 연구(Saldanha 2011), 동일한 원천 텍스트를 번역한 두 명 이상의 번역가 문체를 비교 분석한 연구(조의연 2012; 유한내 2014; 이상빈 2019) 등에 비해 창작 텍스트라는 분석의 차원을 추가한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으며 번역가의 문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번역가 겸 작가인 안정효¹⁾의 번역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와 그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 그리고 그의 창작 텍스트(non-translated text, 이하 NT)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ST와 TT의 비교를 통해 TT에 나타난 안정효의 번역 문체 특징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 그러한 문체 특징이 그의 NT 문체와 비교하여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전체 코퍼스 분석으로 산출한 기초 통계량 중 어휘 다양성과 평균 문장길이 표지를 활용해 텍스트 전반적인 특징과 관련된 번역가의 문체를 살핀 다음, 장소 직시(spatial deixis)라는 특정 문체 표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맥락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직시는 문학 작품에서 이야기의 틀 및 서술자의 관점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Bosseaux 2007: 34-35), 독자와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문체 표지(한미애 2013, 한미애 조의연 2020)로서 문학 번역가의 문체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문체 표지다. 먼저 장소 직

1) 안정효는 1975년 번역서 『백년 동안의 고독』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약 130여 권이 넘는 번역서를 출간한 번역가이자, 1983년 『하얀 전쟁』으로 등단한 작가이기도 하다. 제1회 한국문학번역상, 제3회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한 안정효는 번역가로서도, 소설가로서도 단단한 입지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TT와 NT가 다수 존재하기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시 표현에 대한 코퍼스 정량 분석을 실시한 후 예시와 곁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정성 분석을 통해 번역과 창작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번역가의 문체를 비교 고찰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문체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유형적 문체와 개성적 문체로 구분될 수 있다. 시대적 문체, 장르적 문체 또는 다른 언어에 대별되는 특정 언어의 문체 등 개인을 초월해 많은 표현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체상의 특수성을 유형적 문체라고 한다. 반면 어떤 표현의 특수성이 전체적인 유형을 띠지 않고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는 개성적 문체로 분류된다(이종오 2006: 86). 이를 번역의 맥락에 대입해보면 유형적 문체는 번역된 텍스트 전반에 나타나는 번역의 문체로, 개성적 문체는 번역가의 문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1 번역의 문체

번역학과 문체론은 면밀한 텍스트 분석을 전통으로 삼는 러시아 형식주의 학파와 프라하 구조주의 학파에 기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Boase-Beier 2016: 231). 이들 접근법을 따르는 번역 문체 연구는 ST와 TT를 비교하여 TT가 ST의 문체를 얼마나 잘 재현해냈는가, 혹은 번역과정에서 문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런 논의에서는 TT의 ‘충실성’을 강조하며 번역가가 TT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Baker 2000; Huang 2015). ST에 충실한 번역은 잘된 번역, 그렇지 못한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는 ST를 벗어난 번역의 문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관점에서 번역의 문체는 ST의 문체에 종속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적 문체로 볼 수 있다.

한편 번역 문체는 TT 자체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보편소’, 또는 ‘번역투’의 관점에서도 유형적 문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언어학적 분석

에 토대를 두면서도 ST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번역 문체를 다루게 된다. 번역보편소는 어떤 언어쌍에서든지 TT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베이커(Baker 1993)는 ST에 비해 명료성이 증가하는 경향, ST에 존재하는 중의성이 해소되고 단순화되는 경향, ST에 존재하는 오류를 자가 교정하는 등 문법성을 지키려는 경향 등을 번역보편소의 특징으로 제안하였다. TT가 이런 번역보편소를 특징으로 하는 문체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TT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체적 특징으로 흔히 논의되는 현상은 번역투다. 번역투는 출발어의 언어적 간섭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언어로 모국어를 왜곡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모국어를 풍부하게 하고 이국적인 정취를 살려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김정우 2014; Venuti 1995). 번역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독자의 텍스트 읽기와 직결되는 문체적 효과일 것이다.

위의 논의들은 번역 문체를 유형적 문체로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임에 분명하다. 단 여기에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문체의 변수가 있다. 올바른 번역은 ST의 표면적 문체를 TT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ST의 문체 특징을 도착 문화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 효과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Boase-Beier 2006; Hatim 2004)과 번역 문체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해석과 개입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성적 문체로서의 번역가 문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번역가의 문체

번역의 문체가 출발 텍스트의 문체를 번역 텍스트에 얼마나 잘 ‘재생산(reproduce)’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면(Huang 2015: 23), 번역가의 문체는 번역가가 단지 ST를 도착 언어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흔적을 남기는 창의적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번역가의 문체는 서문, 역자 후기, 주석, 용어집 등을 포함한 텍스트 전반에 나타난 번역가의 전략으로서, 일회성 출현이 아닌 일관되고 반복적인 패턴을 지닌 번역가의 특징적인 언어 사용으로 나타난다(Baker 2000: 245). 번역가의 가시성을 주장했던 베누티(Venuti 1995)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번역가의 흔적을 찾으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번역학 연구는 번역이 단지 원전의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작업임을 강조한다(이영훈 2014: 68). 허먼스(Hermans 1996)는 번역가가 언어와 독자, 문화 등이 원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한 선택을 하게 되며, 모든 번역에는 타인의 목소리, 즉 ‘번역가의 목소리(translator’s voice)’가 숨겨져 있다고 하였다. 베이커(2000)는 지문을 남기지 않고 사물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탈인격적 방식(impersonal way)으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번역에 나타난 번역가의 문체를 ‘지문(thumb-print)’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허먼스는 번역가의 존재가 드러나는 이유가 맥락을 고려한 번역가의 목적, 의도 등 사회적인 영향에 기인한다고 본 반면, 베이커는 번역가의 의식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언어 사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입장으로 번역가의 문체를 고찰하는 시각과 방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의 존재와 그 존재가 남긴 흔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두 연구자는 번역가의 문체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맘캐어(Malmkjær 2004: 16)는 출발어와 도착어가 항상 1:1로 대응하지는 않으므로 출발어를 도착어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번역가가 ST라는 주어진 제약 속에서 중재자로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살다냐(Saldanha 2011)는 번역가의 문체를 ST 지향적인 문체와 TT 지향적인 문체로 구분한다. ST 지향적인 번역가의 문체는 ST가 달라지면 번역의 문체도 달라지므로 번역의 문체가 텍스트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TT 지향적인 문체는 ST가 다르더라도 한 번역가의 다양한 번역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체 특징을 일컬으며, 번역의 문체가 개인적인 속성에 기인한다고 본다(Saldanha 2011: 27-28). 이와 같이 번역가의 선택과 개인적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번역가의 문체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주요한 관점이 된다.

2.3 문체 표지와 장소 직시

2.3.1 문체 표지

현대 문체론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러시아 형식주의와 프라하 구조주의 학파(Sotirova 2016: 3)에서는 일상 언어와 구분되는 낯선 언어의 사용이 독자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Šklovsky 1917/1965, Gibbons and Whiteley

2018: 15에서 재인용). 그러나 문학의 언어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언어 사용의 한 부분(Simpson and Hall 2002: 136)이라는 시각이 대두하면서 맥락을 중요시하는 화용, 담화적 측면의 문체 연구가 발전하였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인지 문체론, 페미니즘 문체론, 코퍼스 문체론 등 문체 연구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문체는 모든 언어 현상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므로 문체를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송요인 2014: 25). 이에 리치와 쇼트는 두드러진 문체 현상을 살필 수 있는 언어적 특징을 ‘문체 표지(style marker)’라 칭하고 문체 분석의 범위와 범주, 예시를 제안하기도 했다(Leech and Short 2007: 61-64).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리치와 쇼트의 문체 표지 체크리스트

어휘 범주 (lexical categories)	어휘 일반: 일반적인가 구체적인가? 형식적인가 구어적인가? 명사: 추상명사인가 구상명사인가? 어떤 종류의 추상명사인가? 형용사: 쓰임이 빈번한가? 물리적, 심리적, 시각적, 청각적, 지시적, 정서적 등 어떤 종류의 형용사인가? 등
문법 범주 (grammatical categories)	문장 유형: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 어떤 문장 유형이 사용되었는가? 절 유형: 관계절, 부사절, 명사절 등 어떤 유형이 선호되는가? 문장 복잡성: 독립절과 종속절의 비율은? 문장길이는 어떠한가? 문법 일반: 일반적인 문법 구조가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등
비유/수사 (figures of speech, etc.)	문법적/어휘적 비유: 반복, 대두법과 같은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표현의 수사적 효과가 있는가? 음운론적 효과: 두운법, 음의 유사(유음)와 같은 패턴이 있는가? 모음과 자음의 소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비유법: 신조어, 일탈, 언어의 파괴, 은유와 직유법 등의 쓰임은 어떠한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등
맥락과 결속성 (context and cohesion)	결속성: 접속사 등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문장을 구성하는가 혹은 함축적인가? 대명사, 대동사 등의 사용이 생략 또는 반복 등을 통해 어떻게 문장의 결속성을 구성하는가? 맥락: 저자는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가 혹은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저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화법(직접화법, 간접화법 등)은 어떠한가? 등

상기 목록은 문체 연구를 위하여 어떤 언어 현상을 살펴보아야 할지 방향

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일 뿐이며, 문체 표지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리치와 쇼트는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목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요소를 선택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것들은 무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한다(2007: 55-56). 본 연구에서 번역가의 문체를 탐구하기 위해 분석할 문체 표지는 <표 1>의 네 가지 범주 중 각각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어휘 다양성과 문장길이, 그리고 맥락과 결속성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직시다. 그중 어휘 다양성과 문장길이는 코퍼스 분석 기초 통계량에서 구할 수 있는 표지로, 베이커(2000), 보소(Bosseaux 2007), 리(Li 2017)는 이 두 문체 표지를 분석해 다수 번역가 간 유의미한 문체 차이를 밝혀냈다. 특히 이들 표지는 텍스트의 문맥에 의존하는 문체의 면면을 살피기보다 텍스트 전반적인 특징과 관련된 문체를 살피기에 적합하다. 직시 표지는 정량적 분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문학작품에서 번역가의 선택에 따른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문체 표지(한미애 2013)이므로 문학 번역가의 문체를 분석하는 데 우선 주목할 표지로 판단하였다. 다음 소절에서 직시, 그중 본고에서 분석할 장소 직시 표현이 문학 작품의 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2.3.2 장소 직시

언어와 문맥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언어 현상이 바로 직시다(배문숙 2000: 19). 직시는 특정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맥락 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상을 가리키며(박철우 2011: 2), 화자는 담화 의도 또는 심리적 태도에 따라 직시 표현을 달리 선택하거나 특정한 항목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직시 표현을 사용한다(정희자 2008: 213-15). 특히 문학 작품에서 직시는 독자와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독자를 작품에 몰입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표지이다(한미애 2013; Gibbons and Whiteley 2018; Green 2016).

화자가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공간의 맥락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데 사용하는 직시 표현은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언어의 직시 표현이 똑같은 문법적 자질을 지니지는 않는다(Cairns 1991: 19). 직시를 번역할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언어 간 문법 체계가 다른 경우인데(한미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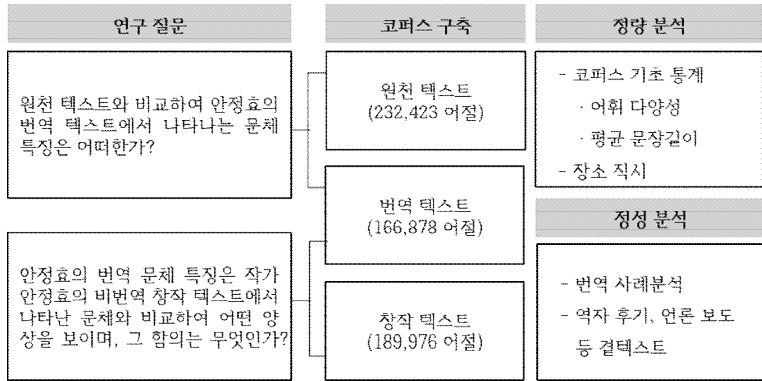
의연 2020: 192), 영어와 우리말의 장소 직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영어의 장소 직시는 ‘here’와 ‘there’로 나타나는 이원화 체계이지만 우리말의 장소 직시는 ‘이’, ‘그’, ‘저’라는 삼원화 체계가 존재한다. ‘here’는 화자로부터 가까운 곳, ‘there’는 화자에게서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곳을 지시한다. 우리말의 ‘이’는 화자에게 가까운 곳, ‘그’는 화자에게서 멀고 청자에게서 가까운 곳을 지시하며,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킬 때는 ‘저’라는 직시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장소 직시는 공간적 원 근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관계(Lyons 1977, 정영환 1998: 41에서 재인용), 즉 심리적 원 근까지 반영한다(정희자 2008: 230). 예를 들어 ‘And that scar is from when the rope broke during a fire drill in college.’에서 ‘that scar’는 화자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가리키는데, ‘this’가 아닌 ‘that’이라는 직시의 사용은 상처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준다(정영환 1998: 51). 따라서 직시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ST의 저자가 의도했던 문학적 효과가 TT에서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 나아가 ST와 TT의 독자가 작품을 감상할 때 서로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번역가 겸 작가 안정효의 번역 텍스트(TT)와 여기에 해당하는 원천 텍스트(ST), 그리고 창작 텍스트(NT) 각 세 편씩을 선정하여 모두 전자문서로 구축하였다.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은 워드스미스(WordSmith) 7.0 버전(Scott 2016)을 사용한다. 다음은 연구설계를 간단히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1 연구설계 개요



분석대상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첫째, 통시적 차이로 인한 출발 언어의 간섭을 극복하고자 ST의 출판 시기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둘째, 중역과 각색을 거친 작품은 안정효의 번역 문체를 살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셋째, 비슷한 주제를 가진 작품일 경우 유사 단어, 혹은 표현 등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제가 겹치지 않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들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분석 텍스트는 다음 목록과 같다.

<표 2> 분석 텍스트 목록

구분	작품명	저자	출판년도	출판사
원천 텍스트 (ST)	The Good Earth	Pearl S. Buck	1931	Washington Square Press
	Brave New World	Aldous Huxley	1932	Penguin Books
	The Human Comedy	William Saroyan	1943/1966 ²⁾	Dell Publishing
번역 텍스트 (TT)	대지	안정효(역)	2003	문예출판사
	멋진 신세계		2015	소담출판사
	인간 희극		1985/2006 ³⁾	문예출판사
창작 텍스트 (NT)	은마	안정효	1991	나남출판사
	착각		1999	오늘출판사
	미늘		2012 ⁴⁾	나남출판사

분석 텍스트는 온라인에서 전자 파일을 구할 수 있었던 *Brave New World* 를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직접 모든 서적을 스캔한 후,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ader, OCR)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 파일에서 문자를 추출한 후 전사하였다. 인식 불량으로 인한 오타자는 연구자가 모두 확인하여 바로잡았으나, 띄어쓰기 등 국어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소수의 사례는 연구자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본래 텍스트에 표기된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구축된 코퍼스의 크기는 총 589,277어절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코퍼스 구성 및 개요

구성	언어	코퍼سم명	내용	크기(어절)
병렬코퍼스	영어	ST_Eng	1930-40년대 출간된 원천 텍스트 세 편	232,423
	한국어	TT_Kor	원천 텍스트의 번역 텍스트 세 편	166,878
	한국어	NT_Kor	안정효의 비번역 창작 텍스트 세 편	189,976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를 통해 ST 대비 안정효의 TT에서 나타나는 문체 특징을 먼저 살피고, 이어 모두 한국어로 구성된 비교 코퍼스를 통해 TT에 드러난 안정효의 번역 문체 특징이 그의 NT 문체와 비교하여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살피고자 한다.

3.2 분석방법

3.2.1 코퍼스 기초 통계

코퍼스 분석은 대량의 텍스트를 전자 파일로 구축하여 직관적 관찰이나 수

- The Human Comedy*는 1943년 처음 발표되었으나 이후 1966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개정판은 초판본과 비교하여 내용의 일부 삭제만 있을 뿐 내용이나 표현상의 변화는 없었다. 번역본인 『인간 희극』은 1966년 출판본을 번역한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각각 제1판, 제2판 출판년도로 본 연구는 2006년 출판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 2012년 판 『미늘』은 1991년 출판된 『미늘』과 2000년에 출판된 후속작 『미늘의 끝』을 하나로 묶어 출판된 것이다.

작업 분석만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문제 특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워드스미스는 다양한 기초 통계량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는 그중에서 어휘 다양성과 평균 문장길이를 분석한다.

어휘 다양성은 먼저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 TTR)로 살펴본다. 타입(type)은 전체 코퍼스에서 중복된 어절을 제외한 총 어절의 수이며, 토큰(token)은 중복된 어절도 모두 합산한 수치다(Olohan 2004: 80). 타입을 토큰으로 나누면 얼마나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TTR은 코퍼스 크기에 따라 그 수치가 왜곡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 타입-토큰 비율(standardized type-token ratio, STTR)을 분석 지표로 삼는다. STTR은 전체 코퍼스에서 1,000어절당 TTR을 계산한 후 평균을 낸 값이다(Olohan 2004: 80-81). STTR이 높을수록 보다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같은 어휘의 반복이 많다고 해석된다. 보다 세부적인 어휘 다양성은 어휘 목록(word list)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어휘 목록은 전체 코퍼스에서 사용된 총 어휘의 빈도수를 제시하며 글의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어보다는 문법적 자질을 지닌 기능어가 대개 상위를 차지한다.

3.2.2 장소 직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장소 직시는 ‘here’와 ‘there’이다. 두 장소 직시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ST에 ‘here’와 ‘there’가 출현한 구, 절,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번역을 모두 엑셀 파일에 좌우로 정렬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장소 직시의 번역 범주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 직시의 한국어 번역 전략을 범주화한 정형화된 분석틀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조수연 2014)⁵⁾의 직시 번역 전략 분류틀을 참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텍스트를 무작위로 약 10% 발췌하여 예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ST의 장소 직시

5) 조수연(2014)은 직시의 번역 전략을 ‘대체’, ‘보완’, ‘보존’, ‘생략’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호칭을 나타내는 인칭 직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에 ‘보완’이라는 범주는 장소 직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완’은 예를 들어 ST의 ‘Tom’을 ‘톰 아저씨’라고 번역한 경우이다.

가 TT에 그대로 보존된 경우는 ‘유지’, ST의 장소 직시가 TT에서 다른 유형의 장소 직시로 번역된 경우 ‘직시 내 대체’, ST의 장소 직시가 아주 다른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는 ‘직시 외 대체’, 그리고 번역이 생략된 경우는 ‘생략’으로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4>는 그 사례를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장소 직시의 번역 분류 범주

분류 범주	예문	예문
유지	What is this man doing <u>here</u> ?	이 사람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직시 내 대체	<u>Here</u> is a lusty fellow.	저 친구
직시 외 대체	You trade <u>here</u> ,	당신은 우리 가게하고 거래가 있는
생략	Well, but <u>here</u> were these.	그러나, 그들이 또 있었던 것이다.

4. 분석 결과

4.1 어휘 다양성

어휘 다양성은 STTR과 어휘 목록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다음은 각 코퍼스의 타입/토큰과 STTR 정보이다.

<표 5> 코퍼스별 타입/토큰 및 STTR

	ST_Eng	TT_Kor	NT_Kor
Type/Token	12,071/232,423	41,509/166,878	51,334/189,976
STTR (%)	38.65	74.89	79.66

상기 표의 결과를 보면 원천 코퍼스(이하 ST_Eng)에 비해 번역 코퍼스(이하 TT_Kor)와 비번역 코퍼스(이하 NT_Kor)의 STTR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영어와 한국어라는 이중 언어 간 문법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⁶⁾. 같은 문법 구조를 지닌 TT_Kor와 NT_Kor를 비교해보면 NT_Kor

6) 허용 김선정(2013)에 따르면 영어는 우리말보다 형태소 수가 적어 단어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언어로, 이와 같은 특징은 각각 영어와 우리말로 이루어진 텍스트 간에 상당한 어휘 다양성 차이가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에서 STTR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TT가 NT에 비해 어휘 다양성이 낮고 단 순화되는 경향이 있다(이창수 2013; Baker 1993; Laviosa 2002)는 주장을 뒷받 침한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개별 텍스트의 STTR을 별도로 산출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텍스트별 STTR

하위 코퍼스	작품명	STTR (%)
ST_Eng	The Good Earth	36.16
	Brave New World	45.20
	The Human Comedy	35.84
TT_Kor	대지	74.60
	멋진 신세계	78.03
	인간 희극	71.12
NT_Kor	은마	79.83
	미늘	79.85
	착각	78.85

원천 코퍼스(이하 ST_Eng)의 STTR은 ‘Brave New World(45.20) > The Good Earth(36.16) > The Human Comedy(35.84)’ 순이며, TT_Kor에서도 마찬가지로 ‘멋진 신세계(78.03) > 대지(74.60) > 인간 희극(71.12)’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TT_Kor의 STTR은 최고 78.03에서 최저 71.12만큼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NT_Kor의 경우 최고 79.85에서 최저 78.85로 상대적으로 고른 수치를 유지한다. 이는 안정효의 번역 문체가 어휘 다양성 측면에서 ST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TT_Kor와 NT_Kor의 상위 열 개 최빈도 어휘 목록 비교를 통해서도 두 코 퍼스 간 어휘 활용에 따른 문체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표 7> TT_Kor와 NT_Kor의 최빈도 어휘

	TT_Kor			NT_Kor		
	Word	Freq.	%	Word	Freq.	%
1	그는	1,943	1.16	한	1,712	0.90
2	말했다	1,338	0.80	두	655	0.34
3	그	958	0.57	그는	621	0.33

4	그리고	914	0.55	했다	550	0.29
5	이	857	0.51	그리고	485	0.26
6	한	854	0.51	다시	472	0.25
7	하지만	767	0.46	그래서	464	0.24
8	그의	745	0.45	더	462	0.24
9	그가	739	0.44	서	457	0.24
10	왕릉은	580	0.35	그런	443	0.23
합계		9,695	5.80		6,321	3.32

상위 열 개 최빈도 어휘가 각 코퍼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T_Kor에서 5.8%, NT_Kor에서 3.32%로 나타난다. 이는 TT에서 같은 어휘의 반복이 더 두 드러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TT_Kor에서는 대명사, 지시 관형사, 접속 부사의 사용이 전체 5.8% 중 4.14%를 차지하며 특히 대명사(그는, 그의, 그가)의 쓰임이 유독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NT_Kor에서는 수 관형사, 호칭기 등 보다 다양한 범주의 품사가 사용되는 등 두 코퍼스 간에 품사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차이는 안정효의 번역 문체가 그의 무의식적인 언어 사용에 기인한다기보다 ST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동일 인물이 작성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지 여 따라, 즉 번역가로서의 글쓰기인지 혹은 작가로서의 글쓰기인지에 따라 문체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4.2 평균 문장길이

다음은 세 코퍼스의 평균 문장길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 8> 코퍼스별 평균 문장길이

	ST_Eng	TT_Kor	NT_Kor
평균 문장길이	16.71	9.58	13.65
문장 개수	13,907	17,414	13,913

7) NT_Kor의 최빈도 어휘 열 개 중에서 1위에 자리한 ‘한’은 수 관형사로 사용된 것 외에 작품 속 등장인물인 ‘한 전무’를 지칭하는 경우로 다수(총 768회) 쓰였으며, 마찬가지로 9위에 자리한 ‘서’ 또한 등장인물 ‘서 사장’을 호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총 436회)다.

평균 문장길이를 보면 ST_Eng가 가장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NT_Kor, 그리고 TT_Kor 순으로 나타난다⁸⁾. 각 텍스트별 평균 문장길이를 통해 번역가 안정효의 문체 특징을 보다 깊이 탐색해보고자 한다.

〈표 9〉 텍스트별 평균 문장길이

하위 코퍼스	작품명	문장 개수	평균 문장길이	표준편차
ST_Eng	The Good Earth	3,880	29.70	16.45
	Brave New World	5,072	12.91	
	The Human Comedy	4,955	10.44	
TT_Kor	대지	5,614	13.90	8.24
	멋진 신세계	6,394	8.12	
	인간 희극	5,406	6.84	
NT_Kor	은마	6,449	11.92	12.21
	미늘	5,335	14.50	
	착각	2,129	16.80	

TT는 ST에 비해 전체적으로 문장 개수가 늘어나면서 평균 문장길이가 짧아졌지만, 개별 텍스트 간에 비교를 해보면 그 양상은 앞서 살펴본 STTR과 마찬가지로 ST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ST의 평균 문장길이는 ‘The Good Earth(29.70) > Brave New World(12.91) > The Human Comedy(10.44)’ 순이며, TT도 동일하게 ‘대지(13.90) > 멋진 신세계(8.12) > 인간 희극(6.84)’ 순서를 따른다. 대체로 ST의 평균 문장길이가 길면 TT의 평균 문장길이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코퍼스의 평균 문장길이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ST_Eng의 경우 16.45인데 비해, TT_Kor는 그 절반 수준인 8.24에 불과하다. ST의 경우 저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큰 반면, 동일인인 안정효가 번역한 세 개의 TT에서는 문체가 보다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TT와 NT를 비교해보면, TT가 NT에 비해 평균 문장길이가 더 짧고 표준편차도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T가 NT에 비해 더 단순하고 높은 동질성을 지닌다는 단

8) 단, 영어인 ST_Eng와 한국어인 NT_Kor, TT_Kor 간의 비교는 언어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순화와 균일화 가설(Baker 1993)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코퍼스에서 TT가 ST에 비해 문장길이가 짧은 이유를 ST 대비 문장길이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대지』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고찰해보고자 한다. *The Good Earth*는 다른 ST와 비교해보아도 특히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The Good Earth*가 지닌 고유한 문체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ST_Eng의 최빈도 어휘를 통해 *The Good Earth*의 문장길이가 유독 긴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다.

〈표 10〉 ST_Eng 텍스트별 최빈도 어휘

	The Good Earth		Brave New World		The Human Comedy	
	Word	%	Word	%	Word	%
1	AND	6.72	THE	6.43	THE	6.29
2	THE	5.34	AND	3.08	TO	3.04
3	HE	3.39	OF	2.84	AND	2.82

*The Good Earth*의 경우 접속사 AND의 출현 횟수가 다른 두 텍스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AND의 빈번한 사용은 *The Good Earth*가 지닌 독특한 문체 특징이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The Good Earth*의 AND에 의한 장문의 사용과 그 번역 양상을 함께 살펴보겠다.

<예문 1>

[ST] Then he submitted himself to the barber's soaping and rubbing and shaving, and being after all a generous fellow enough, the barber gave him without extra charge a series of skillful poundings upon his shoulders and back to loosen his muscles.

[TT] 왕룽은 비누칠을 해서 얼굴을 문지르고 면도를 하는 이발사의 손에 자신을 맡겼다. 알고 보니 꽤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이발사는 돈을 더 받지 않고도 능숙한 솜씨로 그의 두 어깨와 등을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었다.

<예문 2>

[ST] “Well, go, will you!” said the old lady in irritation, and Wang Lung, bowing hastily, turned and went out, the woman after him, and after her the gateman, carrying on his shoulder the box.

[TT] “자, 어서 가라니까!” 노부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왕릉은 황급히 절을 하고 나서 몸을 돌려 대청에서 나왔다. 여자가 그의 뒤를 따랐고, 그녀 뒤에는 껌짝을 어깨에 멘 문지기가 따라왔다.

위 두 예문을 살펴보면 ST는 모두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접속사 AND가 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TT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각각 두 개, 네 개의 문장으로 번역되었으며, 여기서 TT의 문장길이 짧아진 원인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표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he Good Earth*의 총 문장 개수는 3,880개인 반면 『대지』의 문장 개수는 5,614개로, ST의 장문이 TT에서는 여러 단문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접속사를 사용한 장문보다는 단문을 선호한다는 점이 안정효의 고유한 문체 특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표 8>에서 보았듯이 안정효의 NT_Kor에서 평균 문장길이(13.65)가 같은 언어로 쓰인 TT_Kor의 평균 문장길이(9.58)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TT와 NT의 문장길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시 연결어미 사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 어법에서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구성되며, 겹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된다(김남미 2016: 277, 304-11). 겹문장일수록 문장이 확대되고 문장길이 길어질 소지가 있으며, 종결형이 아닌 연결형 어미의 사용은 문장의 확대를 시사하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

연결어미가 사용된 문장을 살피기 위해 워드스미스의 콘코던스(concordance) 기능을 사용하였다. 콘코던스는 전체 코퍼스에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하여 보여준다. 연결어미 검색어의 콘코던스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결어미가 아닌 다른 기능으로 쓰인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연결어미 ‘-고’의 검색에서 ‘최고’처럼 명사가 검색되는 경우, ‘-하고!’처럼 연결형이 아닌 종결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검색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TT_Kor와 NT_Kor에서 연결어미가 사용된 문장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우리말의 연결어미 종류 및 분석 결과

분류	의미	종류	문장 수	
			TT_Kor	NT_Kor
대등적 연결어미	나열	-고, -며, -면서	6,211	7,411
	대조	-나, -지만, -만	688	920
	선택	-든지, -든, -거나	206	292
종속적 연결어미	원인	-니까, -므로, -느라고, -서	445	571
	연속	-자마자, -자	13	34
	양보	-어도, -더라도, -은들, -든지, -르더라도	96	150
	의도	-고자, -려, -려고, -러	381	453
	파급	-게, -도록	211	174
	비유	-듯이	78	68
	전환	-다가	359	581
	심화	-르수록	23	53
합계			8,711	10,707
총 문장 수 대비 비율 (%)			50.02	76.95

TT_Kor에서는 연결어미 사용이 전체 문장 수 대비 50.02%, NT_Kor에서는 76.95%로 나타났으며 NT_Kor에서 연결어미를 활용한 장문의 쓰임이 더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평균 문장길이 측면에서 TT는 ST, 그리고 NT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T의 문장길이 ST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난 현상을 『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으며, TT와 NT의 문장길이에 차이 존재했다. 이는 앞서 어휘 다양성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 인물이 작성한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번역가와 작가는 다른 정체성을 지닐 때 서로 다른 문체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3 장소 직시

4.3.1 ‘here’의 번역

‘here’는 장소의 개념 외에 ‘지금’이라는 시간의 개념과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부르는 말 ‘이보게’ 등의 의미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직시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므로 시간과 호칭으로 사용된 ‘here’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ST_Eng에서 장소 직시로 사용된 ‘here’는 전부 257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12〉 ‘here’의 번역 양상

	ST_Eng	TT_Kor			생략
		유지	직시 내 대체	직시 외 대체	
빈도수	257	214	6	7	30
비율(%)	100	83.27	2.33	2.72	11.67

ST의 ‘here’가 TT에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어서 생략, 직시 외 대체, 직시 내 대체 순으로 나타난다.

‘here’가 유지된 번역은 ‘이쪽’, ‘여기’, ‘이곳’, ‘이리로’ 등 그 표현이 다양하며, 때로는 아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ere’가 지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경우도 발견된다.

<예문 3>

[ST] Here we have eaten the beasts that ploughed our fields and the grass and the bark of trees.

[TT] 이 마을에서도 우리는 밭을 갈던 짐승들을 잡아먹고 풀과 나무껍질을 뜯어 먹었어요.

직시 내 대체는 ST의 ‘here’가 ‘그’ 또는 ‘저’처럼 다른 범주의 직시로 번역된 경우이며, 다음의 사례와 같다.

<예문 4>

[ST] here the courts stood in silence; there the little room where he had left his basket; here the long verandas supported by the delicate, red varnished pillars.

[TT] 그곳 마당은 조용했고, 그가 바구니를 맡겼던 작은 방이 있고, 기다란 난간은 여전히 섬세하고 빨간 옷칠을 한 기둥이 떠받들고 있었다.

위 <예문 4>에서는 ST의 ‘here’가 우리말에 대응하는 표현인 ‘이’형 직시가 아닌 ‘그’형 직시로 번역되었다. ST에서는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가까운 반면, TT에서는 그 거리감이 확대되고 따라서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또한 ST와는 달라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장소의 개념이 사라지고 아주 다른 표현으로 번역된 직시 외 대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예문 5>

[ST] You trade here, and you, Mr. Sickert. George. Mr. Spindle. Shorty.

[TT] 당신은 우리 가게하고 거래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당신, 시커트 선생님도 그냥 계세요. 조지도 그렇고, 스피들 씨도, 쇼티(땅딸보라는 별명)도.

위 <예문 5>에서는 ‘here’가 지닌 장소 직시의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 가게’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ST에 존재하는 장소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라는 표현에서 화자와 대상,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는 가깝게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here’가 생략된 번역의 예이다.

<예문 6>

[ST] The men stood here smiling slightly, his uncle among them, unmoved.

[TT] 남자들은 얇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꼼짝도 않고 기다렸다.

위 <예문 6>의 ST에서는 ‘here’라는 표현으로써 화자가 등장인물인 ‘the men’, ‘his uncle’과 같은 장소에 존재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지만, TT에서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힘들다. 또한 ST에서는 ‘here’라는 장소 직시의 사용으로 독자와 텍스트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 TT에서는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의 ‘here’는 우리말에서 유지, 대체, 생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었지만, 그중에서도 ‘here’가 지닌 직시적 의미가 TT에서 유지된 경우가 확연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2 ‘there’의 번역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there’ 구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there’가 어떤 장소를 가려내는 데 쓰이는 직시적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장소가 아닌 대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적 유형이다(황영순 2002: 1013). 본 연구에서는 직시적 용법으로 쓰인 ‘there’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there’는 화자에게서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곳을 지시한다(정희자 2008: 228). 우리말에서 ‘그’는 청자와 가까이 있는 것, ‘저’는 화자와 청자 둘 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정의(정재운 2016: 463-64)에 따라 ST의 ‘there’가 ‘그’로 번역된 경우를 유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또는 ‘저’로 번역된 경우는 직시 내 대체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3〉 ‘there’의 번역 양상

	ST_Eng	TT_Kor			
		유지	직시 내 대체	직시 외 대체	생략
빈도수	316	105	47	52	112
비율(%)	100	33.23	14.87	16.46	35.44

앞선 ‘here’의 경우 유지 번역이 80% 이상으로 ST의 직시적 의미가 TT에 비교적 잘 보존된 반면, ‘there’의 번역은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유지 번역된 경우보다 생략된 경우가 더 빈번하며, ‘here’처럼 한 범주의 번역에 집중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there’의 의미가 유지된 번역은 ‘그곳’, ‘거기’ 등이며 ‘here’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구체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예문 7>

[ST] There, even a slave, perhaps, would not drink only water.
 [TT] 아마도 그 집에서는 중도 맹물을 마시지 않았으리라.

직시 내 대체는 ST의 ‘there’가 ‘이’ 또는 ‘저’로 번역된 경우로, 총 47건의 사례 중에서 33건은 ‘저’로 번역된 경우이며 ‘이’로 번역된 사례는 14건이다.

<예문 8>

[ST] Rain was there, dark in the clouds, heavy upon the wind.

[TT] 무겁게 바람을 짓누르는 듯한 구름들은 시커먼 저 속에 비를 머금고 있었다.

<예문 9>

[ST] He had decided to live there because the view was so beautiful,
 [TT] 그가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던 까닭은 경치가 참으로 아름다웠고,

다음은 ‘there’가 지닌 원근감이 사라지고 직시 외 대체로 번역된 사례이며, ‘떨거니’, ‘가만히’, ‘그냥’처럼 인물의 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주로 발견되었다.

<예문 10>

[ST] Wang Lung stood there in his yard where year after year he had threshed his good harvests,
 [TT] 왕룽은 해마다 풍작을 이룬 곡식을 타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달째 쓸모없이 버려둔 앞마당에 떨거니 서 있었다.

<예문 11>

[ST] Then suddenly as he sat there came a noise like the cracking of heaven
 [TT]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하늘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다음은 ‘there’의 번역이 생략된 예이다.

<예문 12>

[ST] There they were, in Ithaca, California, probably seven thousand miles from what had been for centuries their home in the world.
 [TT]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몇백 년 동안 그들의 고향이었던 곳에서부터 7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캘리포니아 주의 이타카에 와 있었다.

<예문 12>에서 ST의 ‘there’는 고향으로부터 7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멀고 아득한 곳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TT에서는 ‘와 있었다’라는 서술어로 인해 ‘there’가 가리키는 그곳 ‘이타카’가 등장인물과 독자에게 매우

근접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ST의 ‘here’는 TT에서 그 의미가 유지되었으며, ‘there’의 경우에는 그 원근감이 TT에서 손실되는 경향이 있었다. ST에서는 ‘here’와 ‘there’의 출현 빈도가 각각 257회, 316회로, 이 중에서 here는 214회, there는 105회가 TT에 유지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은 ST에서보다 TT에서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번역가 안정효가 ST 직시 번역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선택을 통해 이런 결과를 야기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정효의 고유 문체인지를 그의 NT_Kor에 나타난 장소 직시와 비교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 14>는 NT_Kor에 나타난 장소 직시의 출현 양상이다.

<표 14> NT_Kor의 장소 직시 출현 양상

	NT_Kor		
	이	그	저
빈도수	375	125	32
비율 (%)	70.49	23.50	6.01

안정효의 NT_Kor에서는 ‘이’형 직시의 사용이 약 70%로, ‘그’ 또는 ‘저’ 계열의 장소 직시보다 그 쓰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소 직시의 사용 양상이 안정효 고유의 문체적 특징인지, 혹은 우리말의 보편적 현상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세종 코퍼스 자료에서 소설 텍스트만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참조 코퍼스(이하 Ref_Kor)를 구축, 활용하였다. Ref_Kor의 크기는 총 879,445어절이다.

<표 15> Ref_Kor의 장소 직시 출현 양상

	Ref_Kor		
	이	그	저
빈도수	585	773	112
비율 (%)	39.80	52.58	7.62

Ref_Kor에서 장소 직시의 출현 양상은 ‘그 > 이 > 저’ 순으로 나타나며, ‘이’와 ‘그’의 출현 비율이 안정효의 NT_Kor에서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이는 곧 ‘이’ 직시의 빈번한 사용이 안정효 고유의 문체적 특징임을 방증한다. ST_Eng에서 ‘there’의 출현이 ‘here’보다 많았음에도 TT_Kor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현상은 작가 안정효가 지닌 문체 특징이 번역가 안정효의 문체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4.4 추가 논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안정효의 번역 문체는 ST의 영향을 받은 측면과 ST를 벗어나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모두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이 ST의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 작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정효는 번역가의 존재를 숨기고 ST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어 분석 결과가 그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음은 언론지에 실린 안정효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안정효)는 양심적인 번역가는 ‘투명인간’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가는 독자의 눈에 보이면 안 된다. 번역가의 목소리는 독자의 귀에 들려서도 안 된다.” 번역가는 원문을 돋보이게 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는 ‘음지의 인간’이라는 숙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2007.04.12)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번역은 제2의 창작’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싫은 말은 ‘번역이 원문보다 낫다’는 겁니다. (중략) 외국 작품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한없이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게 번역가의 숙명입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가는 원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경제 2016.11.25)

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번역가 안정효는 ST에 충실한 번역을 강조하고 번역가는 ‘비가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한다⁹⁾. 그러나 그의 TT에서는 번

9) 안정효가 주장하는 ‘투명인간’이나 ‘비가시성’은 ST를 최대한 존중하되, 텍스트상에서 번역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을 가리키므로, 베누티(Venuti 1995)가 이를 제기한 투명하고 유창한 자국화 번역, 그에 따른 번역가의 비가시성과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

역가의 중재와 개입이 드러난 흔적을 앞선 분석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번역가 안정효와 소설가 안정효의 자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작품을 쓸 때 창조자가 되고, 번역을 할 때 전달자가 되죠. 철저한 전달자가 되는 건 지금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답도 없어요.” (한국경제 2016.11.25)

또한 안정효는 ‘작가’ 안정효와 ‘번역가’ 안정효의 자아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소 직시의 번역에서는 이 주장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가 번역가의 의식적인 작용인지, 혹은 무의식적인 작용인지는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번역가의 문체를 지문에 비유한 베이커는 번역가의 무의식적인 문체 특징에 주목하였다(2000: 245-46). 그러나 살다냐는 단지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만으로는 번역가의 문체 특징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무의식적인 언어 선택이 ‘의도(intention)’와는 다른 어떤 ‘동기(motivation)’를 지니고 작품의 미학적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1: 29-31). ‘이’ 직시는 ‘그’ 직시보다 더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실감 나는 전달이라는 느낌을 준다(주지연 2008: 113). 안정효의 TT와 NT에서 ‘이’ 직시 사용이 두드러진 점은 독자와 텍스트 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더욱 실감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동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번역가의 문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번역가의 문체는 ST와 해당 번역가의 NT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둘째, ST를 존중하고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번역가일지라도 모든 TT에는 번역가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허먼스(1996)의 주장처럼 자신의 고유한 문체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셋째, “문체는 곧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말은 번역의 영역에는 온전히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동일한 인물에 의한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TT와 해당 번역가의 NT가

항상 같은 문체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번역의 문체 연구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접근으로 번역가의 문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우선 ST와 TT, 그리고 NT를 동시에 비교하고, 안정효라는 인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해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번역 문체를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사례 중심의 논지 전개를 벗어나 분석대상 텍스트 전체를 코퍼스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사례 제시와 더불어 역자 후기, 기사문과 같은 고티렉스트를 통해 정량 분석을 해석하는 정성분석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완해야 할 한계 또한 지닌다. 같은 ST를 번역한 안정효 외 다른 번역가의 TT를 검증 코퍼스로 구축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인쇄 텍스트를 전자문서로 구축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소모되므로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체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어휘 다양성, 문장길이, 장소 직시라는 세 표지를 중심으로 문체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코퍼스 분석에 적합한 분석 표지를 추가로 선별 또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TT에 나타난 문체 특징이 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혹은 무의식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번역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었으리라 본다. 향후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번역 문체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남미 (2016) 『친절한 국어문법』, 서울: 나무의 철학.
 김정우 (2014)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조의연 (편저),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111-132.
 박철우 (2011)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어미학』 36: 1-37.
 배문숙 (2000) 「영어 직시(deixis)의 실제와 화용론적 기능」, 『인문과학』 6: 19-40.
 송요인 (2014) 「문체의 제 문제」, 조의연 (편저),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

- 사, 17-36.
- 유한내 (2014) 「『위대한 개츠비』의 번역자별 문체 분석: 선택적 변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135-153.
- 이상빈 (2019) 「번역문체 비교 연구: 소설 「유형의 땅」과 인바운드 vs 아웃바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21(3): 125-148.
- 이영훈 (2014) 「번역문체론 연구동향, 주요문헌 해제」, 조의연 (편저),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65-107.
- 이종오 (2006) 『문체론』, 서울: 살림.
- 이창수 (2013) 「영한 번역 코퍼스 활용한 단순화 및 균일화 보편소 연구」, 『통역학연구』 17(3): 341-358.
- 이창수 (2015) 「컴퓨터 문체 분석법을 활용한 번역가 문체 연구」, 『통역과번역』 17(3): 119-137.
- 정영환 (1998) 「직시적 표현의 화용적 의미해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재운 (2016) 『말과 글을 살리는 문법의 힘』, 서울: 시대의 창.
- 정희자 (2008) 『담화와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조수연 (2014) 「코퍼스 기법을 활용한 문학 텍스트 직시어(Deixis) 번역 전략 비교 분석: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239-264.
- 조의연 (2012) 「번역가의 문체선택 연구 -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 텍스트 비교분석」, 『번역학연구』 13(5): 197-221.
- 주지연 (2008)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가 결합한 시간표현 부사의 통시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33: 109-123.
- 한미애 (2013) 「소설 텍스트에서 직시어 번역양상: 「눈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389-410.
- 한미애, 조의연 (2020) 「한용운의 시 번역 분석: 인지적 직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1): 189-214.
- 허용, 김선정 (2013) 『대조언어학』, 서울: 소통.
- 황영순 (2002) 「There 구문의 화용론적 연구」, 『평택대학교 조기홍 박사 고회 기념논문집』 1009-1020.

- Baker, Mona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Mona Baker, Gill Francis, and Elena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233-250.
- Baker, Mona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Boase-Beier, Jean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Boase-Beier, Jean (2016) ‘Stylistics and Translation’, in Violeta Sotirova (ed.) *The Bloomsbury Companion to Stylistic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231-243.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 Buffon, Georges-Louis Leclerc (1753/1921) *Discours sur le Style*, France: Hachette.
- Cairns, Barbara (1991) ‘Spatial Deixis’, *Lund University, Dept. of Linguistics Working Papers* 38: 19-28.
- Gibbons, Alison and Sara Whiteley (2018) *Contemporary Stylistics: Language, Cognition, Interpretation*, Edinburgh: Edinburgh UP.
- Green, Keith (2016) ‘Deixis in Literature’, in Violeta Sotirova (ed.) *The Bloomsbury Companion to Stylistic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400-415.
- Hatim, Basil (2004) ‘The Translation of Style: Linguistic Markedness and Textual Evaluativeness’,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3): 229-246.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Hogan, Patrick Colm (2014) ‘Stylistics, Emotion and Neuroscience’, in Michael Burk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tylis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16-530.
- Huang, Libo (2015) *Style in Translation: A Corpus-Based Perspective*, Heidelberg: Springer.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odopi.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second edition, London: Longman.
- Li, Defeng (2017) 'Translator Style: A Corpus-assisted Approach', in Meng ji, Michael Oakes, Li Defeng and Lidun Hareide (eds) *Corpus Methodologies Explained: An Empirical Approach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03-136.
- Lyons, John (1977) *Semantics I*, London: Cambridge UP.
- Malmkjær, Kirsten (2004) 'Translational Stylistics: Dulcken's Translations of Hans Christian Anderse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13-24.
- Olohan, Maeve (2003) 'How Frequent are the Contractions? A Study of Contracted Forms in the Translational English Corpus', *Target* 15(1): 59-89.
- Olohan, Maeve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ldanha, Gabriela (2011) 'Translator Style', *The Translator* 17: 25-50.
- Scott, Mike (2016) *WordSmith Tools version 7*, Stroud: Lexical Analysis Software.
- Šhklovsky, Victor (1917/1965) 'Art as Technique', in Lee T. Lemon and Mariom J. Reis (trans. and eds)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3-24.
- Simpson, Paul and Geoff Hall (2002) 'Discourse Analysis and Stylistic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2: 136-149.
- Sotirova, Violeta (2016) 'Introduction. The Discipline of Stylistics', in Violeta Sotirova (ed.) *The Bloomsbury Companion to Stylistic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3-18.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인터넷 자료>

- 고명섭 (2007. 4. 12) 「번역이 살아야 학문도 출판도 살지요」, 『한겨레』, 2020년 5월 18일 검색.
- 이미아 (2016. 11. 26) 「번역은 제2의 창작?...전달에 충실해야 제대로 된 번역」, 『매일경제』, 2020년 5월 18일 검색.

<분석 텍스트>

- ST1: Pearl S. B. (1931) *The Good Earth*,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ST2: Huxley, A. (1932) *Brave New World*, London: Penguin Books.
- ST3: Saroyan, W. (1966) *The Human Comedy*, New York: Dell Publishing.
- TT1: 안정효 옮김 (2003) 『대지』, 서울: 문예.
- TT2: 안정효 옮김 (2015) 『멋진 신세계』, 서울: 소담.
- TT3: 안정효 옮김 (2006) 『인간희극』, 서울: 문예.
- NT1: 안정효 (1991) 『은마』, 파주: 나남.
- NT2: 안정효 (1999) 『착각』, 서울: 오늘.
- NT3: 안정효 (2012) 『미늘』, 파주: 나남.

[Abstract]

Does Identity Affect Translator Style?

A Corpus-based Case Study on Translations and

Creative Works of Ahn Junghyo with Special Reference to Spatial Deixis

Lee, Sae-hee Choi, Hee-ky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nce the mid-1990s, scholars including Hermans (1996) and Baker (2000) have posited that all translators leave behind traces in their translations. Translation style research, which attempts to identify individual stylistic traits that are distinctive from source texts (ST) or other translators, has significantly advanced. However, few studies have explored the style of a single translator by comparing translations and creative work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yle of one translator in relation not only to ST but also to creative writings as a new dimension of analysis. Specifically, it presents the case study of Korean translator Ahn Junghyo as he is prolific in both areas of translation and literary writing. This study adopts a corpus-based approach, focusing on lexical diversity, mean sentence length, and spatial deixis markers “here” and “there.” Findings reveal that the lexical diversity of ST and the use of spatial deixis in his original writings affect the translation style of Ahn Junghyo. Indeed, mean sentence length deviates from both ST and his original writings. This implies that Ahn Junghyo produces a variety of stylistic features according to his identity either as a translator or a writer, which results in a translated text with distinctive stylistic features.

▶ Key Words: translator style, style in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corpus-based translation study, deixis

▶ 주제어: 번역가 문체, 번역문체, 문학번역,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직시

이세희(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생
shsshwa@naver.com
관심분야: 번역문체, 문학번역,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최희경(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조교수
trans.hufs@gmail.com
관심분야: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번역 문체 연구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